**약0404 Note**

**◆ 세상과 구별되라**

Ω요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니라,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만약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면, 그 경우에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내 종들이 싸울(아고니조마이:투쟁하다,상을 위해 싸우다,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열심히 애쓰다, 힘쓰다,시합)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은 여기로부터가 아니니라,

Ω고전1550. 한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육신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물려받을 수도 없으며,또한 썩음(프도라: 몰락,황폐,부패,멸망)이 '썩지 않음(아프다르씨아:썩지 않음,영원한 존재,순수,불멸)'을 물려받지도 못하느니라.

고후0617. 그러므로 그들 사이로부터 밖으로 나와, 너희는 갈라지라(아포리조:경계선에 의해 규정하다,제한하다,제외하다,지명하다,나누다,구별하다,단절하다), 주가 말하느니라, 그리고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니라,

Ω엡0201. 그리고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던(생명이 없던) 너희를 그분께서 소생시키셨느니라.

Ω약0404. 너희 간음자(모이코스:정을 통한 자, 변절자,간음자)들과 간음한 여인(모이칼리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친구됨이 하나님과 적대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친구가 될 누구든지 하나님의 적이니라.

◇성경은 믿는 자들이 세상과 분리된(격리가 아님) 삶을 살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증오하라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감정의 변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하여 우리도 미워해야 하는 것이 회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죄에 대한 증오를 내포한다.

참회자는 죄를 혐오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죄를 사랑한다.

죄를 사랑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죄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의성은 죄를 속죄제사로도 씻을 수 없게 만든다.

죄를 떠나는 것보다 죄를 혐오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